

보도일시	2025. 05. 27. (화요일)		
위원회명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
담당자	이우형 비서관 / 02-784-6450	E-mail	wishjeju@daum.net

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 '기후테크가 미래다'

- 기후위, 탄소중립 이끄는 중소기업 정책 제안서 전달받아
- 탄소포집(CCUS), DAC, 청정수소 등 핵심 기후기술 지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위진, 이하 '기후위')는 26일(월), 기후테크 선도 중소기업들로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기반의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공기중 이산화탄소포집(DAC),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부품소재 분야에서 활약 중인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CCUS도입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확대 ▲중소규모 포집 기술 실증 확대 ▲청정수소 생산과정 탄소 감축 인정 ▲배출권거래제 개편 ▲기후테크 산업 육성 등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기후위 위성곤 위원장과 염태영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기후테크는 단지 미래산업이 아닌,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전략”이라며, “에너지 전환·탄소감축·순환경제 등 다양한 기술들이 기후테크라는 이름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이 기술혁신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이미 기술 중심의 기후 전략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며, 미국·EU 등은 CCUS와 청정수소 등 기후기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도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 위원장은 “오늘 전달된 제안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벽, 투자 장벽, 시장 진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 기후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는지를 제시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며, “기후위는 이 제안들을 바탕으로 기후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끝/



<사진> 2025. 05. 26.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기후테크 선도 중소기업 정책전달식